

따라서 본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있어 기초접종이 되어있는 상태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.

다만,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감보로 생독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.

또한 뉴캐슬병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GNE백신 전에 뉴캐슬생독백신을 접종하므로써 본 백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다.

만일 감보로 생독백신도 접종하지 않았고 야외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본 백신접종 4주 전에 감보로 생독백신을 접종하여야 하며 뉴캐슬 생독백신 접종도 필요하다면 본 백신접종 4주 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.

EDS백신 효과 증강을 위하여 본 백신 접종 전에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.

4. 접종방법 및 접종량

0.9×13mm 주사침을 사용하여 흉근 또는 대퇴근에 수당 0.5ml씩 접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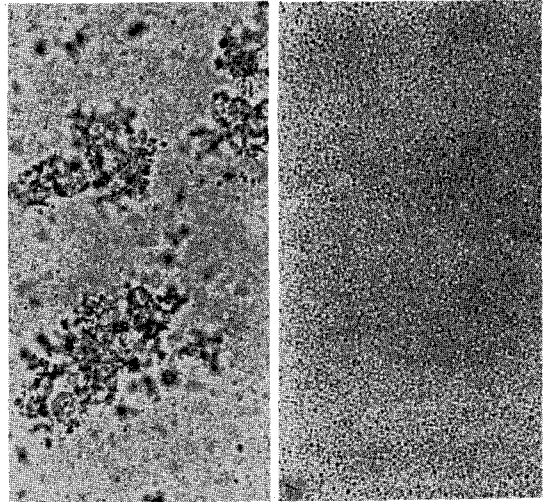
5. 면역효과

접종 종계로부터 태어난 병아리는 4주간 감보로병에 대한 모체 이행항체를 유지하므로써 감보로병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며, 접종종계는 거의 전 산란기간 중에 태어나는 초생주에 모체항체를 이행시킨다.

접종 종계에서 뉴캐슬병이나 EDS '76에 대한 면역은 전 산란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다시 접종할 필요가 없다.

소위 뉴캐슬병에 대해서 한번 접종으로 일생 면역이 된다는 것이고 보면, 이 한가지 만으로도 호감이 안 갈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.

그러나 이는 백신 제조회사의 얘기이고 보면, 무작정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현재 시험접종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각종 보고서와 시험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양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.



△ 백신의 보좌제의 유지화 상태를 현미경으로 보아도 제품의 질에 차이가 큰 것을 알수 있다.

6. 접종반응

감보로백신, EDS백신, GNE백신 같은 오일백신의 가장 큰 단점은 접종부위에 백신액과 생체조직과의 접종반응이 강하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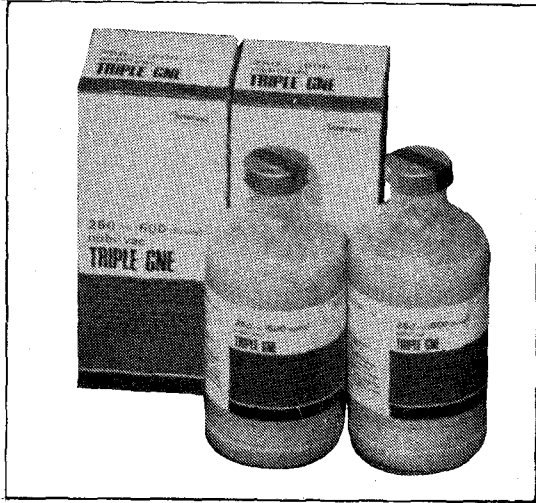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오일의 유지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접종반응은 임상증상까지는 유발시키지 않으며, 다만 접종부위에 가벼운 부종이 수 주간 동안 느껴질 것이다.

이러한 부종은 수 주간 후에는 없어지지만 접종 시에 너무 불결하게 주사기를 취급하여 접종부위에 세균이 접촉되면, 접종부위가 화농이 되어 동통이나 열통을 동반하므로써 접종부위가 다리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다리를 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.

흉근인 경우에는 흉근 사이로 화농이 퍼져 종계는 활력을 잃고 폐계가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.

7. 백신 사용시 주의사항

가. 백신 사용전에 백신이 실온(15~25°C)에 이르도록 하여백신의 유동성을 높인다.



▲백신은 2~8℃에 보관해야 한다.

- 나. 백신 사용전에 심하게 흔들어 내용물을 균등하게 혼합하고 사용중에도 자주 흔들어서 준다.
- 다. 주사기와 침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접종부위에 세균의 감염기회를 줄인다.
- 라. 사용시작한 백신은 24시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.

8. 보관온도

얼면(동결) 사용할 수 없으며 2-8℃에 보관한다.

9. 수입의 필요성

종계에서 100일령부터 130일령 사이에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뇌척수염백신(AE), 감보로백신, EDS백신, 뉴캐슬백신 4종류가 있으며 작년년부터는 전염성후두기관염(ILT)백신까지 불어나 5가지가 된 셈이다.

여기에 뇌척수염백신만 제외하고는 4가지 백신이 접종부위도 경부피하접종, 점안접종, 근

육접종 등으로 접종작업의 번거로움과 노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.

외국 사람이 이와같은 한국의 양계인을 보고는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.

또한 닭들로서도 한참 알을 낳기 위해서 안정해야 할 대추 말기에 5번씩의 접종으로 시달리다 보니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적인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.

이와같은 불합리한 접종작업으로 종란생산이 종계수당 5개 정도는 감소되고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 종계수수를 200만이라고 보면 200만수 × 5개 × 100원(종란생산원가) = 10억원(년간)이, 계속되는 접종 스트레스로 입는 양계인들의 부당한 손실인 셈이다.

한편, GNE백신은 종계용이므로 국내 총 필요한 200만 수 분을 수입한다해도 국내 백신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, 국내 백신생산보호 명목하에 더욱 큰 양계인의 손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.

또한, 뉴캐슬병같은 것이 한번 접종으로 일생면역이 된다 하면, 방역문제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의 손실, 접종작업의 인력, 시간 낭비 등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언제까지 양계인이 이와같은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.

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질병의 수는 증가하고 접종백신 종류는 늘어갈 판인데 전근대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양계산업의 근대화를 의칠 수 있으며, 국제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인가.

빠른 시일안에 관계관, 기술자, 관계협회는 양계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리라 본다.

질 좋고 값싼 정부미 먹어 물가안정 이룩하자